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부, 5월 12일 '김연아' 선수를 「한식 홍보대사」로 위촉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월 12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내 한식홍보관에서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를 한식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연아 선수는 "세계에서 한식을 보다 쉽게 맛볼 수 있길 바라며, 세계인에게 '한식'의 맛과 멋을 알리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위촉 소감을 밝히며, '한식'이 평소 건강과 체력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가장 좋아하는 한식으로 '갈비'와 '김치찌개'를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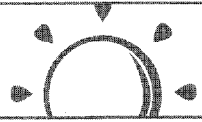
장태평 장관은 김연아 선수가 흔쾌히 한식홍보대사를 맡아준 것에 감사드리며, 세계인들이 김연아 선수의 아름다운 점프와 환상적인 연기에 매료되었듯이 한식의 매력에 빠지는 날이 김연아 선수를 통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위촉식과 함께 농식품부 장태평 장관은 김연아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한우 갈비'를, 김연아 선수는 '김연아 자서전과 기념주화'를 선물하고 서로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위촉식이 끝난 후, 김연아 선수는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장관과 함께 한식홍보관도 관람하였다.

한식홍보관에서는 세계화에 맞춘 새로운 한식메뉴·상차림 등 볼거리와 남아공월드컵 16강진출 기원 '16강 막걸리' 시음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5.12일(수)부터 ~ 5.15일(토)까지 진행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업이 고통받지 않도록 보살피 주소서 농진청, 구제역과 시험사업으로 희생된 가축들 위해 축훈제 지내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 국립축산과학원은 5월 10일(월) 개원 58주년을 맞아 축산시험연구사업과 구제역으로 인해 희생된 가축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축훈제를 드리고 우수연구원 시상 등 개원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1952년 5월 농림부 중앙축산기술원으로 발족한 이래 2010년 5월 10일자로 개원 58주년을 맞이했다. 올해 개원기념 행사는 구제역의 확산으로 인한 과학원 차단방역을 위해 외부인사의 초청을 자제하고 내부 직원들로 조촐하게 행사를 진행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수원 청사내 있는 축훈비 앞에서 진행된 축훈제는 분향, 강신, 참신, 초헌, 축헌사낭독, 아헌, 종헌, 사신의 순으로 진행됐다. 축훈비 앞에는 가축들이 좋아하는 배추와 무, 사료, 건초, 생초 등이 맨 앞에 위치하고 다음에는 흥동백서를 지켜 밤과 배, 꽃감, 대추, 사과, 당근 순으로 차려진 제상이 마련됐다.

축훈사에는 "최근 우리나라는 구제역의 확산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 땅에 축산업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보살피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을 담았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라승용 원장은 "매년 많은 가축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나라 축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구제역의 확산으로 많은 가축들의 희생이 뒤따르고 있다"며 "우리 모두 화합·단결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장 김영수, 운영지원과
오관석 031-290-1515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검역원, 외국어 국경검역 홍보 방송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2000년 이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이주 민방송(MNTV)을 통해 국경검역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의 국경검역 외국어 홍보방송은 최근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진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자가소비용으로 국내 입국 시 휴대하거나 국제우편물로 들여오는 햄, 소시지 등 불법축산물의 반입금지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의하면 세계적인 구제역 발생원인으로 육류, 육제품 또는 음식물 쓰레기(66%), 공기(바람) 또는 철새(22%), 가축수입(6%), 오염된 물질 또는 사람(4%), 백신(3%) 등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처음으로 시도하는 외국인 근로자 국경검역 홍보는 이주민방송에서 한글을 포함한 14개국 언어로 제작해 본방송 전에 약 32초간 캠페인식 '스팟광고'로 홍보한다. 스팟광고는 이주민이 한국으로 입국할 때 휴대가 금지되어 있는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햄, 소시지 등)에 대한 정보와 외국인 근로자가 축산농가에서 근무할 때 지켜야할 소독, 개인위생 등 기본적인 방역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반입할 수 없는 금지축산물을 휴대한 경우에는 입국장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관에게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검역원은 국제 공·항만에서 해외여행자의 신발소독,

휴대품 검색, 해외여행 축산농가 교육과 소독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해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재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길 • young@chuksannews.co.kr • 2010.5.12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육군본부간 업무협약 체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하영효, 이하 '품관원')은 5월 6일(목)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참모총장 한민규)에서 품관원과 육군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금번 업무협약은 군부대에 납품하는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상호 검수 협력을 통해 육군 장병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품관원은 군부대 급식 관계자에 대한 농식품의 품질·안전 교육, 군납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 여부 판별, 잔류농약 등 안전성조사, 군 양곡의 품질관리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친환경·GAP인증농산물 등의 정보공유를 하게 된다.

육군은 군납 식재료의 원산지표시 조사, 안전성조사 등을 위한 시료 및 구매정보 제공에 협조하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명예감시원'으로서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서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하영효 원장은 "품관원의 다양한 농산물 품질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군 장병들의 급식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군 급식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양 기관이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군 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ews

식품의약품 안전청



가정의 달을 맞아 홈쇼핑 등 집중 점검 실시! 건강식품 52건 검사결과 3건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선물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 및 다이어트 제품 52건을 검사하여 부적합된 3건을 자진회수 및 행정처분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팻버닝다이어트' (식이섬유 보충용 식품) 제품은 식이 섬유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5.5g/15ml이상' 보다 낮은 1.8g/15ml이 검출되었다.

'순우리홍삼정(홍삼농축액)' 제품은 홍삼성분이 제품에 표시된 '140mg/2g 이상' 보다 낮은 101mg/2g이 검출되었고 홍삼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b1, Rg1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마사코원다이어트(체중조절용식품)' 제품은 비타민 E가 제품에 7.3mg/25g 이상 함유된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비타민 B2도 표시된 '0.9mg/25g이상' 보다 적은 0.42mg/25g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TV 홈쇼핑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수거·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원



상반기 축산물HACCP운용 우수업체 시상식 개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은 5월 3일 기준원 8층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축산물HACCP 우수업체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은 축산물HACCP적용 작업장들 중 그 운용·관리 수준이 우수한 업체로서 전년도 정기심사 결과를 토대로 학계, 소비자단체, 관련단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에서 현장평가를 통하여 엄선하였다. 그 결과 식육포장처리업 중에서는 (주)에이스푸드, 알가공업 (주)풍림푸드, 유가공업 매일유업(주) 청양공장, 집유업 서울우유협동조합(포천집유장), 식육판매업 내서농협 하나로식육점 등 5개 업체가 최종 선발되었다. 하반기에는 식육가공업, 가축사육단계, 사료공장에 대하여 우수업체(농장)을 선발할 예정이다.

축산물HACCP기준원의 석희진 원장은 이 자리를 통해 축산물HACCP운용수준 우수업체의 노고를 치하하고, 금년에 시범적으로 시작한 축산물HACCP 운용수준 평가를 내년부터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이들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T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식재료도 온라인으로”

5개 시·도교육청, aT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

일선 학교들이 온라인을 통해 급식용 식재료를 빠르고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는 11일 양재동 aT센터에

서 부산·인천·전북·충남 등 4개 교육청과 ‘그린 클린(GREEN CLEAN) 협약식’을 체결하고 오는 2학기부터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8월 별도로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9월부터 이들 5개 시·도 내 250여 개교의 식재료 조달과정이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15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aT 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면 각 학교는 식단 작성 후 입찰등록을 하고, 업체는 전자투찰을 통해 납품하면 되기 때문에 시장조사, 낙찰결정 등의 단계가 대폭 축소된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식재료 구매와 관련해 매달 입찰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 수작업으로 3,4일이 소요되고, 급식 담당자도 매달 물가정보 조사에 평균 3,4일을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업체 역시 월 3,4회 학교방문에 따른 인적·물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처럼 학교 행정업무가 간소화될 뿐 아니라 계약의 투명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류, 과일·채소류, 수산물 등 식재료 400여 품목에 대한 표준화된 식품규격을 제공함으로써 업체 선정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 주기 때문이다. aT 전자조달 시스템은 기존의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EIS)과 연계 지원된다.

aT 사이버거래소는 올해 5개 시·도 시범거래를 시작으로, 내년에 10개 시·도 2,000개교, 2012년 16개 시·도 4,500개교로 참여를 확대하고 2013년에는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윤장배 aT 사장은 “aT 사이버거래소는 농수산물유통 전문기관으로서 친환경·우수 농산물 인증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급식을 제공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으로 지자체별 농수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지역 농가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 자연재해 예방에 기상정보 활용 한국농어촌공사와 기상청, 11일 기술교류 활성화 등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어촌 피해예방에 기상정보가 활용된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와 기상청(청장 전병성)은 11일 경기도 의왕시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상청과 기상정보 활용을 통한 농어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술교류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양기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촌의 피해 저감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홍수, 가뭄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기상·수문 정보(DB)를 공유하게 된다. 또한, 농어촌 가뭄 평가 및 예측 등 수문기상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와 기상정보를 활용한 농어촌 수자원 관리 기법 및 교육 협력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협약을 통해 양기관이 기후변화에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홍수, 가뭄으로 인한 농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용수의 과학적인 관리를 통해 녹색성장 및 국민의 안정적 먹을거리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6월 18일에는 양기관이 국회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어업·농어촌 국민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함으로써 기술협력을 위한 첫 발을 내딛을 예정이다.